

사회

피랍 생존 삼호주얼리호 정만기·최진경씨의 특별한 설

“무사귀환은 가족들에 최고의 선물”

순천 정만기 기관장 “가족얼굴 보니 마음 편안”

화순 최진경 항해사 “급박했던 순간 꿈만 같아”

“가족 모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물을 받은 설날입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뒤 6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됐던 삼호주얼리호의 전남 출신 선원 정만기(58·순천·기관장)·최진경(25·화순·3등항해사)씨가 설 연휴에 가족의 품에 안겼다.

최씨의 어머니 김미선씨는 “납치 소식을 듣고 난 후 가족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애를 태웠다”며 “해적들로부터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이들의 얼굴을 마주하니 기쁨과 회한이 겹쳐 눈물만 난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 2일 늦게까지 부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이날 밤 집에 도착한 이들은 “약물 같았던 시간을 이겨내고 설을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지 모르겠다”며 안도의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최영수씨는 “아들이 목포 해양대를 졸업한 후 방위산업체 근무를 위해 배를 탔는데, 승선 5개월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해 이들의 정신적 상처가 큰 것 같다”며 안쓰러워했다.

최진경씨는 쌓인 피로와 긴장 탓인지 집에 도착하자 곧바로 깊은 잠에 빠졌고, 아버지 최영수(52)씨와 어머니 김미선(51)씨 등 가족들은 이들의 무사귀환에 비로소 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

기관장 정씨는 가족과 합류한 후 처가로 이동해 설을 보냈다. 정씨는 해적이 침입했다는 비상벨을 듣고 대피소로 이동했으나 3시간 만에 문이 열리고 해적들이 거

설이었던 3일 최씨는 부모에게 세배를 드리고 조부모의 묘소를 성묘하며 평생 잊지 못할 설을 보냈다.

눈 총구가 코앞까지 왔던 상황을 떠올리며 “언제 죽을지 몰라 극도의 공포감에 시달렸었는데 가족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했다.

최씨는 배가 납치되던 지난날 15일 해적들이 배에 올라탄 후 1등 항해사 이기용씨가 비상벨을 울리자 침착하게 선내방송으로 “해적들이 배에 탔으니 대피하라”고 선원들에게 알렸다. 최씨는 또 무전으로 다른 선박에 삼호주얼리호의 피랍 신호를 보내는 등 구출 직전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

기관장 정씨는 가족과 합류한 후 처가로 이동해 설을 보냈다. 정씨는 해적이 침입했다는 비상벨을 듣고 대피소로 이동했으나 3시간 만에 문이 열리고 해적들이 거

설이었던 지난 3일 화순군 화순읍 계소리 고향집을 찾은 삼호주얼리호 구출 선원 최진경(오른쪽)씨가 아버지 최영수(왼쪽)·어머니 김미선씨와 함께 활짝 웃으며 정담을 나누고 있다.



지난 2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삼호주얼리호 기관장 정만기씨.

눈 총구가 코앞까지 왔던 상황을 떠올리며 “언제 죽을지 몰라 극도의 공포감에 시달렸었는데 가족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했다.



설이었던 지난 3일 화순군 화순읍 계소리 고향집을 찾은 삼호주얼리호 구출 선원 최진경(오른쪽)씨가 아버지 최영수(왼쪽)·어머니 김미선씨와 함께 활짝 웃으며 정담을 나누고 있다.

긴 연휴 ... 교통사고 100여건 잇따라

스키장 과속 충돌사고

30대에 벌금 300만 원

광주·전남북, 화재·변사·산불 등 사건 사고도

지면 철의산 뒤편 야산과 여수시 화정면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나는 등 연휴 기간 광주, 전남·북에서 25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현석 판사는 스키장에서 과속하다 충돌 사고를 일으켜 이용객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전모(3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5일간의 설 연휴 동안 광주와 전남·북지역에서는 각종 화재와 변사, 교통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순천시 순천2터널에서 5중 추돌사고가 나 승용차 운전자 김모(34)씨 등 5명이 부상을 입는 등 연휴 기간 광주·전남에서는 10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5일 오전 9시35분에는 여수시 오천동 선착장 북동쪽 0.48km 해상에서 3년 전 가솔린고 된 정모(34)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여수해경은 숨진 정씨가 3년 전 쪽지를 남기고 행적을 감췄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광모(여·50)씨의 증언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6일 새벽 3시15분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 백운고가도로에서 육군 모부대 소속 전모(21) 하사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마주오던 박모(47)씨의 택시를 들이받아 박씨가 숨졌다. 경찰은 전 하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 아냐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화재도 잇따랐다. 지난 5일 밤 10시 50분께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장모(63)씨의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내부면적 200㎡를 태우고 6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진화됐다. 같은 날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 야산에서는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입야 0.5ha가 소실됐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구례군 토

지은 2009년 2월 강원도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 스키장 슬로프에서 시속 약 40km 속도로 하강하다 중간에 있는 평지에서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광씨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턱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의 약식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태파의 밀수·판매총액인 김모(지나해 자살)씨는 흑사화와 친분이 있는 고문 김씨를 중

앞서 지난 2일 오전 8시20분에는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연남뉴스

무서운 산모

광주 40대, ‘양육비 부담’ 갓 태어난 딸 살해

경찰, DNA검사 의뢰

광주북부경찰청은 6일 양육부담을 이유로 갓 태어난 여자아이를 살해한 산모 한모(41)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모원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갓 태어난 여자 아이의 얼굴에 유아용 모포를 덮어씌운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2년 전 수산업을 하던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빚

을 지게 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분만과 정에서 숨졌다”고 둘러댔으나 아이의 목에 상처가 난 점을 이상히 여긴 경찰이 집중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가 한씨 부부의 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NA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남편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산재환자 식대 허위청구 거액 보험금

의사·원무과장 벌금형

광주지법 각각 500만원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송혜영 판사는 6일 환자들의 식대를 허위 청구해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병원 의사 양모(57)씨와 이 병원 전 원무과장 구모(37)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속여 식대를 청구한 점

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양씨 등이 환자들에게 일일액의 식대를 지급해 직접 챙긴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양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1년간 72차례에 걸쳐 산업재해 환자 6명에 대한 진료비 중 식대를 거짓으로 청구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100여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한·중 조폭 싸고 마약 200억 유통

전국 14개 폭력조직 연계 ... 13명 구속

중국 폭력조직과 싸고 20만명 투약 분량의 히로뽕을 밀수해 유통시킨 국내 14개 폭력조직원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2009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중국 폭력조직인 ‘흑사회’와 연계해 히로뽕 5.95kg을 밀수한 부산 ‘유태파’ 김모(56)고문과 흑사회 선양지역 두목 정모(35)씨 등 조폭 13명(국내 9명, 중국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태파의 밀수·판매총액인 김모(지나해 자살)씨는 흑사화와 친분이 있는 고문 김씨를 중

국에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흑사회로 부터 히로뽕을 밀수한 뒤 국내 폭력조직들에게 공급했다.

또 일명 ‘산타’(마약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은어)로 불린 고문 김씨는 운반총책을 맡아 ‘지계관’ 역할을 했으며, 부산항으로 히로뽕을 밀수한 뒤 부산역이나 터미널 부근에 조폭 행동대장들을 모아놓고 분배했다.

적발된 조직은 칠성과·청랑리와·신상사과·동대문과·이글스과, 부산 유태파·양정파·사상과, 광주 동아과, 인천 간석동과, 수원 북문과, 의정부 신세분과, 충남 논산과 등 여러 지역에 퍼져있다.

유흥비 마련하려고

후배들 폭행 굶품 빼앗아

서부경찰, 10대 2명 영장

광주서부경찰청은 6일 후배들을 불러내 폭행한 뒤 굶품을 빼앗은 양모(18)군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를 불러낸 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70만원 상당의 굶품을 빼앗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군 등은 지난 5일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 광주전원에서 후배 김모(16)군 등 4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현금과 옷 등 70만원 상당의 굶품을 빼앗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군 등에게 전화를 걸어 불러낸 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237) 김중두



남편, 예단비 돌려줘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정승원 부장판사)는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에 이른 A(여)씨와 남편 B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이 갈라서고 B씨가 8억70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 전후에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조건이 붙은 증여와 성격이 유사하다”며 “결혼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도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때와 마찬가지로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신의칙에 맞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09년 9월 결혼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부모는 B씨 부모에게 예단비 10억 원을 보냈다가 2억 원을 돌려받았고 A씨는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지출했다.

이들 부부는 가족에게 줄 선물의 규모나 금액에 대한 이견, 종교적 갈등,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이주여성에 성기 배인 남편 응급치료

○“순창경찰은 6일 홍기로 남편의 성기에 상처를 낸 혐의(상해)로 감보다야 출신의 이주여성 A(26)씨를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에 순창군 팔덕면 서흥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는 남편 양모(52)씨의 성기 3cm 가량을 홍기로 벤 혐의.

○“2007년 10월 양씨와 결혼한 A씨는 평소 의부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남편 양씨의 성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최강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회복지, 농업기술직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경찰직/교정직

법원/경찰직 강의시간: 09:00-19:20 (2개월 완성)

9급 야간반 강의시간: 19:00-22:00 (3개월 완성)

능업직/기술직 강의시간: 09:00-15:30 (2개월 완성)

명품 "강력단과" 영·관·향·행·국·원·한·화·재·경·재·교·학

합격 소망직 (전문) 시험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 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1월